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23. 10. 5]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님,
이방수 LG 에너지솔루션 대표님,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님,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님,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님,
유정열 코트라 사장님, 이인호 무보 사장님,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님,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님,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그밖에 협회 및 관제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지난달 장관에 취임한 이후
민관이 함께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고자 출범한
첫 번째 공식 회의체이자 '수출 원팀코리아의 헤드쿼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수출입 평가 및 전망 】

최근 9월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한 자릿수의 수출 감소율*을 이어 나갔습니다.

* 수출감소율(%) : '23.1월 $\Delta 16 \rightarrow$ 3월 $\Delta 14 \rightarrow$ 5월 $\Delta 15 \rightarrow$ 6월 $\Delta 6 \rightarrow$ 7월 $\Delta 16 \rightarrow$ 8월 $\Delta 8 \rightarrow$ 9월 $\Delta 4$

특히,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불을 기록하였고,
對中 수출도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불을 기록하며
對中 무역수지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 흑자기조로 진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수출도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역수지(억불) : '23.1월 $\Delta 126 \rightarrow$ 3월 $\Delta 47 \rightarrow$ 5월 $\Delta 22 \rightarrow$ 6월 $+11 \rightarrow$ 7월 $+17 \rightarrow$ 8월 $+9 \rightarrow$ 9월 $+37$

다만, 세계적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회복 둔화,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수출 원팀코리아'를 통해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 최근 정상경제외교 성과 】

지난 9월, 대한민국 영입사원 1호인 대통령께서는
불과 1달여간 세계 67개국 정상들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과 함께
우리 수출과 투자 유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뉴욕 UN 총회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현실적 대안으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출범을 제안하였으며,
아세안·G20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23억 달러 추가지원,
40조원 규모의 인니 신수도 이전 사업협력과 함께
필리핀과는 22번째 FTA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의 新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계기로 우리에게 열린 다양한 기회를
본격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시켜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

올해 4분기는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만들어
수출을 플러스로 조기에 전환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수출 모멘텀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단기 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시장별·품목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찾고 수출 시장도 크게 넓히기 위한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모빌리티, ② 에너지, ③ 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금년 중 수출 263억불, 수주 312억불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모빌리티 분야는
아세안 전기차 시장 수출을 위해 ODA 협력을 빠르게 실행하고,
'韓-美 로봇산업 쇼케이스' 등
미국·중동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로봇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인프라 건설 붐을 기회 삼아
'건설사-건설기계사' 동반진출 협력을 통한 기계수출 확대 등
본격적으로 '민관 원팀'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분야는
북미·유럽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우리 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
'연료전지 수출지원 T/F'를 가동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소재·부품 분야는

첨단 신소재 수요가 커지고 있는 미주 국가 등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투명 디스플레이, 항공용 탄소섬유 등에
기술개발, 마케팅, 해외인증 획득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는 각 프로젝트별로 전담관을 두고
정부와 업체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속도감있게 실행하여,
가시적인 수출·수주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전략 】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우디, 올해 1월 UAE 등과의
정상경제외교로 본격화 된 ‘新 중동 붐’을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전적인 목표인
해외 플랜트 수주 3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플랜트 수주 총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동·아시아 등 주요 지역에서의 플랜트 수주 일정과
정부 차원의 협력 일정을 연계하여
우리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힘을 보태고
주요국 고위급 인사 방한 혹은 다자회의 제기 양자 면담 등
각종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중 우크라이나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올해 내 우크라이나에 '재건 협력 사절단'도 파견하겠습니다.

【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방안 】

우리 수출기업들이 한류 열풍, 기술력 향상 등을 통해
중국·동남아 등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K-뷰티, K-푸드, K-패션, K-디자인, K-콘텐츠 등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제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의 유통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연간 무려 2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소비재 수출보험 규모를 9.5조원('22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한류박람회 개최(11월 방콕), 해외식품 인증 애로해소,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22년 238개 → 23년 264개) 등
우리 소비재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 분쟁 예방부터 대응까지
우리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특허분쟁 위험진단 및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 피해구제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청과 코트라가 적극 협력하여
해외 IP센터를 통한 지재권보호 지원 국가를
현재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당부말씀 】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1달러라도 더 수출하겠다’는 절실함과
전심전력 총력의 자세가 간절한 시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①‘수출플러스 전환’, ②‘수출 원팀코리아’, ③‘수출 현장’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출 정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첫째, 수출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서
4분기 ‘수출플러스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수출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통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셋째, ‘수출 현장’에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수적천석’의 자세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